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6월 5일
제1899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성령 강림〉, 조셉 이그나즈 밀도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1-22)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2,1-11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시편 104(103)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1코린 12,3ㄷ-7.12-13 <또는 로마 8,8-17>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요한 20,19-23 <또는 요한 14,15-16.23ㄴ-26>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¹⁹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²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 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²²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는 부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낸다. 성령
강림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이 구원의
신비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와 함께 계속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 완성되었음을 경축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날을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로 본다.



복음 묵상

제1독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하늘에서 불꽃 모양의 성령이 내려온 사건을 전합니다. 오순절은 원래 과월절이 지나고 오십 일째 되는 날에, 밀 수확을 마무리하고 하느님께 만물을 바치며 드리는 감사 축제였는데(탈출 23,16; 34,22; 레위 23,15-21 참조), 점차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 발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이를 듣고 세상 모든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사도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고려하면, ‘하느님의 위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 약속의 성취이며, 이로써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평화’(에페 2,14)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 뵈고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는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은 인간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부어 주신 “생명의 숨”(창세 2,7)이 떠오르게 하며, 제자들은 하느님 생명의 숨과 함께 성령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이 성령으로 새로 나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세상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며, 평화와 생명이신 주님을 전합시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

6월 예수 성심 성월

-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애정으로 받아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셨다. 이렇듯 예수 성심의 사랑은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낸다.



포용하시는 하느님의 충만성의 가장 명확한 표상” (100행)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학교” (123행)라고 하였다. 예수 성심 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특별히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묵상

“예수의 심장은 하느님 자비의 궁극적인 상징”

6월은 하느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인간적으로 표현된 예수 성심을 기리는 달입니다. 대중의 신심은 상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예수의 심장은 하느님 자비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의 상징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구원이 솟아 나오는 중심이자 원천으로서 실존하는 상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갈라 5장 22-23절

〈바로로탈 콘텐츠〉

1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6월 5일(일) 오전 11:30 (B-3,4)

2 성인 견진성사

• 견진성사식 일시 : 6월 5일(일) 오후 3시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알링턴 주교좌 성당)
 •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3 유아 세례

•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체장 회의

• 일시 : 6월 12일(일) 오전 11:30(B-3,4)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6월 12일(일) 오후 1시(B-3,4)

6 혼인 갱신식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7 원주 영산성당을 위한 미사

• 일시 : 6월 11일(토), 6월 12일(일) 주일 미사
 • 원주교구 영산성당 김대중(베드로) 신부님이 영산성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해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영산성당을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8 한국산 고춧가루 기부

• 원주교구 영산성당에서 고춧가루(50g짜리 500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미사 후에 각 가정당 1포씩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본당 총회장 추천

• 2022년 7월부터 본당 회장단을 이끌어갈 총회장을 추천받습니다.
 • 추천 마감 : 6월 5일(일)
 추천 용지는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추천함에 넣어 주세요.
 • 투표 :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 12일(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10 꾸르실료 성당 사각 테이블 세척 봉사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부엌 옆 테라스

11 베드로회 자매모임

• 일시 : 6월 17일(금) 오후 8시 (친교실)

12 요한회 6월 월례회의·피크닉

• 일시 : 6월 17일(금) -18일(토), 1박 2일
 • 장소 : 장문환 형제님댁

13 첫 영성체식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
 • 27명의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지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29일(주님 승천 대축일)

주일 헌금	\$ 7,335.00
교무금	\$ 9,935.00
교무금(신용카드)	\$ 1,060.00
2차 헌금	\$ 2,661.00
감사 헌금	\$ 610.00
온라인 봉헌	\$ 3,830.00
합계	\$ 25,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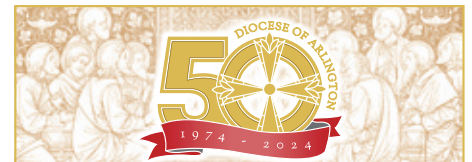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6월 9일(목) 오후 5:00-6:00
 6월 10일(금) 저녁 8:00-9:00
 6월 12일(일) 오전 6:00-7:00

1. 성 정 바로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로베르토 성인
 - "하느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